

장흥군 수산조정위원회, 수산물 콜드체인 예산 확보 최우선



해양수산사업자 선정·어장면허이용 개발계획건 등 심의·의결 “수산업 경쟁력 제고 위해 어업인 선호 사업 예산확보에 최선”

장흥군은 지난 23일 장흥군청 상황실에서 수산 관련 기관 및 수협, 어업인 대표로 구성된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산조정위원회에서는 2021년 해양수산사업자 선정(2차), 2022년 해양수산사업(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신청 건, 2021~2022년 어장·면허이용 개발계획 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2021년도 2차 심의 대상 사업은 연안어선 감척사업, 해조류 양식 자동화 시설 보급사업,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사업 등 총 9건에 45억 원이다. 특히 장흥군은 무산김, 매생이 등

친환경 양식사업 기자재공급사업으로 어장 환경 보호 및 양식어가 어업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도 해양수산사업 신청안으로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사업 등 30개 사업, 242억 원 및 면허 유효기간(20년)이 만료 예정인 재계

발 대상 어업권 11건, 마을 어업 신규 개발 16건, 한정 면허 818ha에 대한 2021~2022년도 어장·면허양식장이 용개발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심의를 의결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심의를 통과한 2022년도 예산 신청안을 3월 중으로 중앙부처에 올려 보내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다”며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업인이 선호하는 사업의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진도군, 75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다음달 중순 접종 시작

대상자 5966명...진도군실내체육관에 예방접종센터 구축

진도군은 오는 4월 중순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백신(화이자)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접종대상은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접종에 동의하고 접종센터 방문이 가능한 어르신들로, 움직임이 불편하거나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제외된다. 진도군 백신 접종 대상 어르신은 모

두 5,966명이다. 군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대상자 등록, 접종예약 관리, 수송차량 지원 및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대상자 등록을 위해 읍·면별 담당 공무원, 마을이장 등은 어르신들로부터 접종 동의를 받아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하고 백신공급일정에 따라

오는 4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군은 군민이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진도군실내체육관에 예방접종센터를 마련하고 의료인력 8명, 행정요원 8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접종 후 3일간 이상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사전 지정된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진도=조성용기자

완도군 인구정책, 군정 핵심 사업과 연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정책 활성화 추진 계획 보고회 개최



완도군은 지난 22일 군청 상황실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응 2021년 인구정책 활성화 추진 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군은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지난해 말 5만 인구가 붕괴함에 따라 인구 유입 방안 논의 및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보고회를 개최하게 됐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완도군의 지역 재생산지수

는 2.08로 전국에서 13위로 나타났다. 지역 재생산지수는 인구를 증가시킬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는 지수로 2차녀 이상 출생률 대비 출산 가능 인구 비율로 산출해 지수 값이 1 이상이면 지역에서 인구가 재생산되고 있음을 뜻한다. 최광윤 여성가족과장은 “지역재생산지수를 더 높이고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군의 성장 잠재력을 부각한 정책을 발굴, 인구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5대 전략, 55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5대 전략은 ▲결혼·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 ▲직장 걱정 없는 환경 조성, ▲가주하기 편한 환경 조성, ▲관광 체류·교류 인구 증대, ▲인구 변화 대응 체계 구축 등이다. 세부 사업으로는 출산 장려 양육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여건 조성, 귀농·귀어 정착 지원, 완도 스마트 치유마을 조성, 도시재생뉴딜 사업 추진, 청년센터 및 평생교육원 운영, 응급의료 지원 강화,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관광지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특히 군 역점 사업이자 완도의 성장 잠재력을 부각한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 해양관광거점도시 건설,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등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인구 유출 방지 및 정착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봉진문 부군수는 “인구 정책을 통해 인구 유입, 정착 기반 조성은 물론 모든 세대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완도를 만들어 지역에 활력이 더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완도=이민혁기자

강진군, 마늘·양파 봄철 생육기 관리 당부

“적기 웃거름 시용으로 생리장해 발생 예방해야”



강진군은 기온이 상승하면서 마늘과 양파가 본격적인 생육기로 들어감에 따라 적기 웃거름 시용과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난지형 마늘의 웃거름 시기는 2월 중하순 1차 웃거름을 살포하고, 3월 하순까지 2차 웃거름을 10a당 요소

17.4kg, 황산칼리 9.5kg을 살포한다. 다만 생육상태를 보아가면서 웃자람이 있는 포장에 평소보다 시비량을 줄이고 일찍 주는 것이 좋고, 4월 이후 너무 늦게까지 주게 되면 별마늘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마늘 무름병은 지상부가 웃자라 통풍이 잘 안 되는 포장에서 무름

증상을 보이는 데 배수구를 정비하여 물 빠짐을 좋게 하고, 비가 오기 전 예방적으로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좋다. 양파에 발생하는 노균병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발생이 확대되고 잎마름병으로 2차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병주는 발병 즉시 제거하고, 사용 가능한 등록 약제를 7일 간격으로 3~5회 적정량을 살포하는 등 조기대응이 관건이다. 또한, 농약 살포시에는 농약 허용 기준 강화제도(PLS)를 준수하여 농약잔류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김춘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마늘·양파의 다수확을 위해서는 철저한 예찰과 적기방제를 통해 초기 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강진=김영일기자

해남군 상수도 검침 원격으로 바꾼다

2025년까지 전체 계량기 교체...스마트 원격검침 도입

해남군은 오는 2025년까지 상수도 검침으로 원격으로 바꾼다. 군은 관내 전체 계량기 2만 5,000대를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으로 교체,

상수도 사용량 검침을 원격으로 실시하는 기반 구축에 나선다. 스마트 원격검침이란 기존에 검침원이 방문해 수동으로 검침하던 방식

에서 벗어나 원격검침 단말기를 활용, 각 가정의 계량기 값이 자동으로 서버에 저장되면서 실시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총 사업비 79억원이 투입되며, 올해는 서버 구축과 함께 해남읍·송지면 일부 지역을 우선으로 디지털 계량기 및 단말기 3,00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기동취재본부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